'2024 광주에이스페어' 관람객 3만6천명 몰렸다

30개국 400개 콘텐츠 기업 참가 3억6500만달러 수출 상담 '성과' 양해각서 27건…전년 대비 증가 광주 문화콘텐츠 허브 도약 기대

국내 최대 문화콘텐츠 전시회인 '2024 광주에이스페어(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 in Gwangju)'가 3만6000여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으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전 세계 콘텐츠기업들이 광주에이스페어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총 1386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해 3억6500만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액을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비즈니스 수출상담회에는 27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대비 수출상담건수와 수출상담액이 각각 474건(52%), 1억3000만달러(57%) 증가한 것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6~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IP의 변주와 다양한 콘텐츠의 탄생(Seeding IP, Digging Content)'을 주제로 세계 30개국가에서 방송·영상,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일러스트 등 400개사 콘텐츠 기업(국내 359, 해외 41)이 503개 부스 규모로 참가했다.

주요 수출 성과로는 광주 대표 애니메이션 기업인 ㈜네온크리에이션은 싱가포르 어거스트 미디어 홀딩스(August Media Holdings)와 애니메이션 '마법소녀 디디 시즌2'에 대한 325만달러 규모의 공동제작·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스튜디오 버튼은 육아방송과 '다이노맨' IP 활용 영상제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HYBE)는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소속 K팝 아티스트의 콘서트,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선보여 21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SK브로드밴드는 '트립인코리아 시즌4', '이제뭐하지?', '본캐사수' 등 3개의 신규 교양·예능 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25건의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LG헬로비전은 시청자의 큰 관심을 받은 '태군노래자랑 시즌2', '제철 요리해주는 옆집 누나 시즌3' 등을 출품, 17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지역 기업으로 스튜디오버튼은 '다이노맨X광주FC' 융복합 콘텐츠를, 캠프파이어애니웍스는 TV시리즈 애니메이션인 '레인보우 버블젬' IP와 관련 캐릭터 상품을 전시했다.

올해는 중국 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CICAF)와 베트남 텔레비전, 푸청차이 타이완멀티미디어제작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광주 문화콘텐츠 업계와 교류를 논의했다. 콘텐츠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제4회 콘텐츠 개발 컨퍼런스는 140여명이 참여, 콘텐츠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광주게임체험존에서는 지역 대표 게임기업인 지니소프트가 자체 제작한 '더스트더비' 게임에 1000여명의 시민들이 몰리며 지역 e-스포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에이스페어는 콘텐츠 비즈니스와 대중의 즐거움을 모두 충족시키며 광주가 콘텐츠 산업의 허브로서 가능성을 널리 알렸다"며 "앞으로도 광주가 K-콘텐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장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데이터·금융·도서·콘텐츠' AI기업 8곳, 광주에 둥지

광주시, 215~222번째 업무협약 기술개발·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데이터·금융·도서·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AI 기업들이 'AI 실증도시 광주'에 안착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들 기업과 AI 기술개발 및 사업화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동구 AI 창업캠프에서 파인디씨피에프브이㈜,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 ㈜그린다에이아이, ㈜리버트리, ㈜모션어드바이저, ㈜에핀, ㈜투엔티닷, ㈜티엔케이에이아이 등 데이터·금융·도서·콘텐츠 분야의 AI 기업 8개사와 215~222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규태 파인디씨피에프브이㈜ 대표이사, 김창호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강호진 ㈜그린다에이아이 대표이사, 조아름·유제승 ㈜리버트리 대표이사, 박성호㈜모션어드바이저 대표이사, 전영미 ㈜에핀 대표이사, 김하영 ㈜투엔티닷 대표이사, 박희수㈜티엔케이에이아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인 장성군 남면에 구축 예정인 파인데이터센터의 개발사인 파인디씨피에프브이㈜,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 등 2개 기업은 광주지역 AI 산업과 AI데이터 센터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역 인공지능 기업들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상호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다른 6개 기업들은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한 AI 전문 분야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 광주형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AI 전문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화 추진 및 기술·정책 자문 수행 △AI 전문분야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기업 홍보 △AI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이날 협약기업인 파인디씨피에프브이㈜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인 전남 장성군 남면에 40MW 규모의 파인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파인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의 시행 주체다. 파인데이터센터는 국내 최초로 AI와 연계한 민간 데이터센터로 건립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AI데이터센터를 통해 기업의 AI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파인데이터센터는 기업의 AI 상용화 서비스 전환을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공직박람회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가 지난 2일 조선대 노천극장에서 조선대와 광주시교육청,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열려 학생들이 기관별 멘토링 부스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소방청·한국전력공사·한국광기술원 등 40여개 기관이 참가했다. 김양배 기자

전남도, '자연재해 대비' 동계작물 재해보험 가입 당부

양파·마늘 등 8개 품목 순차접수 농업인·법인…보험료 90% 지원

전남도는 3일 이상저온, 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동계작물을 안정적으로 짓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10월 중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동계작물은 8개 품목으로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차(茶)·시금치 11월1일까지 △마늘 난지형 7일부터 11월1일까지, 마늘 한지형 7일부터 11월29일까지 △밀·귀리 7일부터 12월1일까지 △보리 7일부터 12월6일까지 △양파 21일부터 11월22일까지 △인삼 28일~11월22일까지다.

가입 대상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보험료는 정부가 50%를, 전남도와 시군이 40%를 부담해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마늘, 양파 등 8개 품목 동계작물을 재배한 7108농가가 8014㏊를 보험에 가입했으며, 올해 3~4월 벌마늘과 양파 생육장애 등 피해를 입어 보험금 435억원을 지급받았다.

실제 해남에서 마늘을 재배하는 한 농가는 자부담 15만5000원으로 가입해 저온 피해로 97배나 많은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엘니뇨, 라니냐 현상 등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는 추세"라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영암서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축제' 열린다

전남도, 12~13일 '전남GT' 6개 종목 150여대 '볼거리'

국제공인 1등급 자동차경주장(서킷)을 보유한 전남도가 12~13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모터스포츠와 자동차 복합문화 발전을 위한 '2024 전남GT(Grand Touring) 대회'를 개최한다.

'전남GT 대회'는 지난 2014년 이벤트 행사로 시작한 이후 '전남도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을 공식 대회로 출범해 2017년부터 '전남GT'로 브랜드화한 종합 스피드 축제다. 자동차 경주를 포함해 모터사이클까지 6개 종목 150여 대가 참가한다.

대회 공식행사로 개최되는 개막식과 가수 그레이의 축하무대를 비롯해 카트체험, 가상레이싱, 레이싱카 전시, 버블쇼 등 모터스포츠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공간을 마련해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대회 기간 야간에는 국토교통부, 전남도, 영암군이 주최하는 '영암 코리아 DFL 2024' 드론대회가 열린다. 국내 최초로 자동차경주장을 활용한 드론레이싱 대회로, 정해진 코스에 따라 장애물을 설치하고 가장 빠르게 결승전을 통과하는 기체가 우승하는 방식이다. 발광다이오드(LED) 불빛을 활용한 야간 경기로 진행된다.

전남GT 대회는 국내 모터스포츠의 다양한 종목으로 치러지는 축제 행사다. 메인 종목인 '전남내구'를 포함해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대회 '슈퍼 6000'부터 레이싱 전용 차량인 '스포츠프로토타입', 400cc의 모터사이클을 종목인 '스포츠바이크'까지 국내 최장 코스인(아시아 6번째) 국제자동차경주장 F1트랙(5.615㎞)에서 개최된다.

'2024 전남GT 대회'는 무료 관람 가능하며, 피트워크와 그리드워크는 꼭 참여할만한 행사로 지상파 방송에는 슈퍼 6000 결승전이 중계된다.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스포츠 등 온라인 채널에서 실시간 경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순철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모터스포츠는 자동차와 관련 분야에 높은 파급력을 가진 산업이지만 국내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모터스포츠대회를 통해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경주장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기업도시 전략적 발전 방안 모색

솔라시도 활성화 비전 보고회 "서남권 거점 복합도시 최선"

전남도는 지난 2일 솔라시도 CC 홍보관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 비전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서남권 거점 복합도시 육성 전략을 모색했다.

보고회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영암·해남군수, 기업도시 3개 지구(구성·삼호·삼포) SPC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별 주요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기업도시 투자유치 현황 보고,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로봇·자율주행 등 혁신적 정주 기반(인프라) 구축,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벨트 조성, 서남해안 광역 관광 거점단지 조성 등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 비전을 발표하고, 사람과 자연, 관광과 첨단정보기술(IT)이 공존하는 미래 첨단 도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기업도시는 정부지원사업 유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데이터센터', '탄소중립 에듀센터', '서남해안 생태 정원도시 사업' 등 16개 사업, 8조8149억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보고회를 계기로 관광개발 및 투자 촉진 등 기업도시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기업도시를 속도감있게 활성화해 서남권의 거점 복합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